용접과 화염절단

(눅12:49-59)

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51.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52. 이 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54.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55.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58.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59.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용접과 화염절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용접과 화염절단’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져서 붙이지 않았더라도 이미 불이 붙었더라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 다음절에, ‘근데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불을 이 땅에 붙이느라고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도대체 이게 무슨 불일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용접과 화염절단이라는 비유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용접을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화염절단이라 그러면 혹시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접과는 정반대의 과정입니다.
용접, 하면은 두 개의 강재, 강철로 된 물건을 불로 녹여서 융해시킨 상태에서 서로 붙입니다.
그러면 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식히면 본래 제 살처럼 용접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슈퍼 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슈퍼 카는 뭐냐 하면, 경주용 자동차가 있잖아요? F1 이라 그러죠, F1.
경주용 자동차가 있고 승용차가 있는데, 경주용 자동차가 엄청난 파워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안락하지는 않습니다.
승용차는 굉장히 안락합니다, 그러나 경주용 자동차만큼 파워와 속도는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장점과 경주용 자동차의 장점을 합쳐 놓은 것이 슈퍼 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페라리 또 람보르기니, 아우디에서 R8 이라고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슈퍼 카입니다.
이 슈퍼 카를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차체를 만드는 겁니다.
Frame, 차의 뼈대를 만드는 건데, 아우디에서 그 특허를 냈어요.
알루미늄으로 이 차체를 만드는 특허를 내서 이 슈퍼 카에 적용이 되는데, 가볍고 속도를 내기가 쉽습니다, 또 굉장히 단단합니다, 안정성을 굉장히 증대시켜줍니다, 연료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전부 알루미늄으로 차체를 만드는데, 이 알루미늄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정말 슈퍼 카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자동차기술이 다 동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라도, 자동차의 차체를 만드는 데는 별 수가 없습니다.

용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5,000개가 넘는 알루미늄 조각들을 다~ 용접을 해 가지고 차체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일반 차들은, 일반 승용차는 대부분이 로봇이 다 용접을 하는데, 이 슈퍼 카는 전부 사람이 수제로 용접을 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차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엔진을 갖다 붙이고, 뭐 가지가지 의자니 뭐니 해서 차를 하나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000개의 알루미늄 조각을 용접을 해서 붙인다.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될까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용접이라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화염절단은 반대 과정을 겪습니다.
불을 통해서 하나이던 강재, 강철 재료를 둘로 나누어 쪼개는 겁니다.
불로 잘라 내는 거예요, 불로.
줄을 쭉 긋고 불로 쭉~ 잘라 낸 다음에, 가는 불로 쭉 잘라 낸 다름에 그 절단면을 갈아서 매끈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화염절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말씀하실 때, 이 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불인가?
본문을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그 분쟁의 구체적인 예를 아버지와 아들이 분쟁하고, 어머니와 딸이 분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고 그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했고, 시집 안 간 딸이 있는 다섯 식구로 이루어진 가정인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쟁을 한다는 얘기에요,
이 분쟁이라는 헬라어가 뭐냐 하면, 나눈다는 뜻입니다.
쪼개어 둘로 나누는 걸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던지러 오신 불은, 무슨 불이냐 하면, 쪼개어 나누는 불입니다.

영어로 divide라고 그래요, divide.
Cutting, 잘라서 Divide, 나누는 불, 이게 분쟁이고(그 뜻이), 이 분쟁을 위한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얘기지요.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나누고 쪼개는 일을 위해서, 화평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나누고 쪼개는 일을 위해서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그 불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에요.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불이 나한테 붙으면서 내가 붙어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잘라내고, 어머니에게서 딸을 잘라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 불이.
화염절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화염절단을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 될까요?
왜 십자가가 그러한 불이 될까요? 잘라내는 불이 되어야만 될까요?
죄를 사해주시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사건이 잘라내는 사건으로 이어져 나갈까?

여러분, 사람은 용접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다.
세상에 좋아 좋아 이렇게 좋은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게 얼마나 좋은 대상입니까?
이삭에게 야곱, 야곱에게 12아들 특히 그 야곱에게 요셉 같은 아들,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이게 불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자체가 불이라서, 이 불이 대상과 나의 마음을 녹여버리고 서로 붙게 만들고, 용접되게 만듭니다.
이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용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화염을 발사해서 그 용접된 부분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대상과 용접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슈퍼 카 한대가 주차장에 서 있거나 길을 달릴 때에, 차 한대가 달리지마는 실제로는 5,000개 이상의 알루미늄 조각들이 용접을 통해서 이루어진, 차체가 달리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혼자만이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는 내 아내가 용접되어 있고, 내 자식들이 용접되어 있고, 내 부모님들이 용접되어 있고, 형제가 용접되어 있고, 교회의 부목사님 목사님이 용접되어 있어서, 일하고 있는 중에도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오고, 집에서 아내한테서 전화가 오고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내가 나로서 친구를 만나고 있지만, 나는 이미 수많은 대상과 관계가 용접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움직인다는 것은, 5,000조각의 알루미늄조각이 용접 되어 움직이는 람보르기니처럼, 페라리처럼 수많은 대상과 용접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얘기에요.
이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왜 죄인의 상태입니까?
쉐마! 선민들에게 주시는 다~ 떨어져 나가도 오직 붙들어야 되는 단 하나의 말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 한마디 말씀은 선민이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기준해서 볼 때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기준에서 볼 때, 내 마음이 내 가족과 녹아서 좋아하면서, 좋아함과 사랑하는 그 불 때문에 녹아서 붙어서 용접되어진 상태, 이게 바로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시는 거예요.
다~ 끊어내는, 용접에 반대되는 화염절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느라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될 경우 나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지은 죄가 용서 받는다' 만날 이 얘기만 해요, 이 얘기만.
근데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가!
죄가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이 다른 것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불 때문에 녹아 가지고 그것과 용접 되어 있는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이고 허물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용서라는 것은,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죄 용서는, 그렇게 내 마음이 좋아해서 하나님 말고 좋아해서 용접되어 있는 모든 용접부분을 절단해 내는 불로 십자가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십자가가 역사를 합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홀로 남아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잘라내는 겁니다, 그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의 불로 내 마음에 용접된 모~든 관계가 다 절단해 나갔을 때, 주님께서 가져오신 불이신 십자가로 다 잘라져 나가고, 내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남아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님의 불이 임하면서 다시 용접작용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불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용접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용접된 내 마음, 내 인격, 요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장생활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용접된 내가 직장생활 하는 거고, 내가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용접된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남편과 용접되고 아내와 용접되고 가족과 부모님과 자식과 용접된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용접된 내가 남편 되고, 하나님과 용접된 내가 아내 되고, 하나님과 용접되어 있는 내가 아빠 되고 엄마 되고 직장인 되고 목사님 되고 부목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0 개가 넘는 알루미늄조각이 용접 되어서 슈퍼 카의 차체를 이룬다면, 하나님과 내가 용접된 고 상태로 나는 슈퍼 휴먼이 되는 겁니다.
슈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인간관계는 어떡하느냐?
나와 용접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가족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지, 내 마음이 붙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아내와 나를 부부로 만들어 주시고, 나와 자식을 부모와 자식 지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게 하시고, 나와 용접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전에는 내 마음이 용해되어 붙었던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이지, 내 마음이 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과 만 용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천기를 분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래 정말 답답하지요.
왜 못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라는 말씀이 다시 나오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행복이 딴 데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은 마음이 느끼는 거니까.

그럼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선민들이라는 자들,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딴 데서 취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말씀만 갖고 있으면, 도대체 천지에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모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걸 모르고 지금 이러고 사느냐 이겁니다.
지금 마음이 하나님 말고, 자식에 붙고 돈에 붙고 내 취미에 붙고 온갖 거에 다 붙어서 용접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내가 얼마나 잘못 됐는가를 모르겠느냐 이겁니다.
왜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말씀이 선민에게 쉐마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날마다 외우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용접되어 있었고,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더러움이고 그것이 영적 음란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 이겁니다.
아! 신기하지요? 그걸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온갖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연민하고, 또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잘못 됐다는 걸 왜 모르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앞에서는 분쟁을 얘기 하시더니, 뒤에서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만약에 내 마음이 돈에 용접되어 있어서, 돈 때문에 사람과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면, 화해하라는 말씀은 마음에서부터 용접되어 있는 돈을 떼어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리라도 갚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리라' 돈을 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아깝다고 붙들고 있거나, 돈이 생겼을 때 빚 갚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일이 있다 그래서 그걸 또 쓴다든지,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돈이 용접되어 있는 상태를 떼 내라는 겁니다.
만일 이게 사람간의 갈등 돈 때문에 생긴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이해됩니까?
호리라도 갚지 않으면 못나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머리카락만큼이라도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과 마음이 용접되어 있는 상태라 그러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못 만나게 되면 넌 죽는 거다, 멸망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마음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용접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나와 용접된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에 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선민에게 주시는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거 놓치면 선민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다~ 마음에서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만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찾자고 말하면, 누가 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사실은, 공중에다 대고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 들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현실감을 갖자!' 지금 돈이 현실이고 성공이 현실이고 승진이 현실이지, 어떻게 천국을 현실로 느끼자고 외치는 겁니까?
이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민의 유전자가 있어요.
아! 그거 신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듣고,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민의 유전자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세상, 말도 안 되는 말씀.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박히면서, '그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라는 것이 반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지요. 잘 안돼요. 십자가를 붙들어도 잘 안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기를 쓰느라고 일평생을 다 소진합니다.
이게 바로 선민입니다.
왜 이 좋고 맛있고 현실적으로 아주 쌈박하게 느껴지는 세상의 대상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제쳐 놓고, 하나님만을 제1현실로 느끼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발버둥을 치게 될까요?
선민이라서 그래요 진짜 선민의 유전자, 하나님 자녀 천국자녀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불이 돼서 화염절단기가 되어서, 하나님 말고 내 마음에 용접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다 절단해 내고 내 마음이 홀로 되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과 용접되게 하고, 슈퍼 카가 아니라 슈퍼휴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관계해야 될 모든 대상들에 대해, 사람이든 사물이든 당신의 뜻을 따라 관계해 나갈 것입니다.

5,000 조각이 용접된 슈퍼 카가 아니라, 하나님과만 용접된 슈퍼휴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오

늘 하루를 한번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슈퍼휴먼 됨에, 이 지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절단하는 불 되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이외의 내 마음이 용접되어 붙어 같이 살고 있던 모든 대상들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이제부터 그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슈퍼휴먼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